

## 1. 문 21

발문에 표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합니다. 발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2. 문 24

정답을 ①로 수정하며, <보기 ㄴ>에 대한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ㄴ (×) :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단이 근거이다. 승과(僧科)는 일정한 절차와 시험을 통해 승려를 관료처럼 선발하는 제도로, 승과 합격자들은 계서화된 승계(僧階)를 수여받았다. 불교계 통제는 상층 승려가 대상인 승과를 통한 승려의 선발, 위계인 승계 수여, 승직 제수라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되어있고, 이러한 과정을 승정(僧政)이라 할 수 있다. 승정은 불교계의 행정체계로 정의되고 승계 승진과 주지 임명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불교에 관한 이러한 사무는 국가 기관인 예부에서 장악했으며, 승려의 승계를 승진시키거나 주지로 임명할 때 형부의 협조를 받아 승적을 심의·검토하고, 이를 중서문하성에 보고하여 국왕의 승인과 대간의 서경을 거쳐 시행했다. 이를 통해 승계 승진과 주지 임명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시행했음을 알 수 있으나, 승려 선발 시험을 고려의 국왕이 승인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